

-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
2024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전문위원실)

||| 목 차 |||

I. 출장개요	1
II. 출장목표 및 과제	2
III. 일정별 주요 방문지	3
IV. 공식방문 기관별 출장 내용	3
1. 다낭시인민의회 간담회	3
2. 주요 관광지 견학 및 벤치마킹	8
① 1일차(1.8. 월) 손짜반도 영흥사	9
② 2일차(1.9. 화) 한 시장, 다낭대성당, 한 강	10
③ 3일차(1.10. 수) 마블마운틴, 호이안	11
④ 4일차(1.11. 목) 바나산, 사랑의 부두	12
V. 정책반영 토론회	13
VI. 총평	17
VII. 향후계획	18

사회문화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I

출장개요

- 출장일정 : 2024. 1. 8.(월) ~ 1. 12.(금) / 3박 5일간
- 출장지역 : 베트남 다낭시(시의회, 시 관광청, 유명 관광지·문화유적 등)
- 출장인원 : 10명(도의원 8, 의회사무처 2)
 - 도의원(8)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 사무처(2) : 의정팀장 외 1
- 출장목적
 - 2023년 9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던 다낭시인민의회 의장단의 초청에 의한 답방 형식으로 다낭시의회 등을 공식방문
 - 다낭시 문화·관광산업 분야 주요 시책에 대한 청취와 현장 시찰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관련분야 추진현황과 비교 분석
 - 우리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접목 가능한 문화·관광 산업 분야 우수 시책 발굴 및 사례 파악
- 주요내용
 - 양 지역간 향후 지속가능한 우호증진 및 교류분야 확대 방안 논의
 - 문화·관광·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인민의회와의 포괄적 업무협약
 - 세계 문화 유산 등의 보존 및 관리, 개발 등 우수 정책 사례 발굴
 - 지역개발과 환경 보존간의 균형, 관광산업 활성화와 주민생활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 등에 대한 조사
 - 양 지역 주민 문화생활 향유 확대 방안 협의
 - 우수 관광지 벤치마킹 및 강원 관광 접목 가능 분야 조사

II

출장목표 및 과제

- 양 지역간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한 답방 및 관계증진에 노력
 - 2023. 9. 26. 다낭시인민의회 의장단의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방문 시 협의 되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의원들의 다낭시의회 방문
 - 양 지방의회 상호교류를 시작으로 의회운영, 문화, 관광 분야 벤치마킹 및 상호 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 다낭시 보유 우수관광자원 분석과 성공사례 청취 및 현지 시찰

- 관광지 개발현장 벤치마킹 및 관광산업 활성화 사례 분석
 - 다낭시 주요 관광정책 현황 등 운영제도의 전반적인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 도내 관광산업의 선진화 방안 모색
 - 현장시찰을 통해 양 지역이 보유한 문화와 자연환경 등의 관광자원화 우수사례 파악
 - 주요 문화유산 건축물·관광지 활용(스토리텔링) 방안에 대한 공유
 - 국립공원(바나힐)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을 통한 관광자원화 사례분석

- 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관광활성화 우수사례 벤치마킹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호이안 지역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자산의 관광 자원 개발 및 관광객 편의시설 구축 실태 파악
 - 각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유적을 연결한 관광지 개발과 전통문화 보존과 이를 이용한 관광 상품화 개발 등의 노하우 분석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보 및 의정활동 우수사례 공유, 홍보 업무협약

Ⅲ 일정별 주요 방문지

일자	주요 내용	비고
1. 8.(월)	◦ 다낭 문화유산 견학(영흥사)	현장견학
1. 9.(화)	◦ 다낭시 의회 방문 - 4개 기관 합동 간담회 개최 ※ 참석기관: 사문위, 인민의회, 다낭관광청, VKBIA	공식방문
	◦ 다낭시내 관광자원 견학(다낭대성당, 전통시장 등)	현장견학
1. 10.(수)	◦ 다낭 세계문화유산 등재지 방문(호이안 문화거리)	공식방문
1. 11.(목)	◦ 바나산국립공원 관리센터 방문 및 견학	현장견학

Ⅳ 공식방문 기관별 출장 내용

1. 다낭시인민의회 4개 기관 합동 간담회

- 일 시 : 2024. 1. 9.(화) 10:00~12:00
- 장 소 : 다낭시인민의회 2층 대회의실
- 참석자 현황

기관	참석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 심오섭 부위원장, 김시성 의원, 김정수 의원, 박관희 의원, 원미희 의원, 원제용 의원, 유순옥 의원
다낭시인민의회	응우옌 티 안 티(Nguyen Thi Anh Thi) 인민의회 부의장, 응우옌 딘 칸 반(Nguyen Dinh Khanh Van) 인민의회 사회문화위원장

기관	참 석 자
다낭시청	응우옌 티 호아이 안(Nguyen Thi Hoai An) 다낭시 관광청 부국장, 레 티 투 한(Le Thi Thu Hanh) 다낭시 외무국 부국장
VKBIA(베-한 기업인 투자협회)	쩨 하이 린(Tran Hai Linh) VKBIA 회장, 즈엉 꽝 푸(Duong Quang Phu) VKBIA 남부지회장

□ 간담 내용

- 다낭 관광산업 관련 노하우 청취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 양 지역 교류 증진 및 협력강화 방안 협의 등

[기관소개] 다낭시인민의회

- 의원선임방법 : 시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 선거
- 임 기 : 5년 (現10대의 경우, 2021~2026)
- 의 장 : 루옹 응우옌 민 찌엣
- 권 한
 - 다낭시 시정제반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
 - 다낭시 사무 및 베트남 중앙정부 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주요 간담 내용

[다낭시 / 응우옌 티 안 티 부의장]

- ▶ 다낭의 경제 규모는 134조 VND(2022년 대비 10조 VND 증가) 이상에 도달 할 것으로 추정. 서비스 및 관광 분야는 계속해서 증가 중이고 총방문객 수는 740만 명 이상이고 국제 관광객은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됨. 동시에 IT산업은 시의 주요 경제 부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 2012년 12월 22일에 열린 제1차 베트남 문화산업개발 전국회의에서 응우옌 반 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2030년까지 베트남 문화 발전 목표에 따라 다낭은 하노이와 호치민과 함께 3대 핵심 문화 산업 중심지 중 하나이자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센터의 구축 및 개발 투자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되었음.

주요 간담 내용

[다낭시 / 응우옌 티 안 티 부의장]

- ▶ 2030년까지 국내와 동남아시아의 주요 경제, 사회 중심지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45년까지 다낭시는 동남아시아 최고 수준의 창업, 창조적 혁신 센터, 그리고 살기 좋은 해양도시로 발전할 것임.
- ▶ 다낭시는 대한민국의 기업인 및 투자협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싶으며, 특히 한국 기업이 마이크로칩·반도체, 정보기술, 하이테크 산업 등의 분야에서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낭시를 홍보하기를 희망함.
- ▶ 2024년 1월 26일, 다낭시는 베트남의 대사/총영사, 국제기구, 국제협력기관, 외국 비정부기구,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인 및 교포 기업 등 약 400명을 초청하여 '2024 다낭을 만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시기를 희망함.
- ▶ 2024년 1월 26일, 다낭시는 베트남의 대사/총영사, 국제기구, 국제협력기관, 외국 비정부기구,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인 및 교포 기업 등 약 400명을 초청하여 '2024 다낭을 만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시기를 희망함.
- ▶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한국의 선도적인 지방 중 하나이며, 풍부한 농축수산물,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농경문화부터 해안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문화가 교차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음.
- ▶ 양 지역은 경제, 문화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문화, 사회 및 관광 분야에서 두 지역이 향후 투자 및 협력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으로 보임.
- ▶ 현재 호아방 현에서는 경상북도 영양군에 근로자 파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는 노동 분야에서 다낭시의 가장 효과적이고 시범적인 협력 모델로 간주되었음.
- ▶ 따라서 앞으로 다낭시는 강원특별자치도와도 유사한 협력 프로그램 확대를 바라며, 자매결연 협약의 체결을 통해 양 지역의 우호 증진과 업무 노하우 공유 등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희망하고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 ▶ 관광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 산업이었지만, 최근 들어 AI 인공지능, 의료바이오, 해양바이오, 수소 에너지, 반도체 등을 중점으로 발전 전략을 세워 다양한 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있음.
- ▶ 양 지역 간의 인적 교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서 말씀하신 근로자 파견 프로그램이나 자매결연을 맺은 후 적극적인 문화, 사회, 관광 및 경제, 산업 분야에서 교류 활동이 촉진되기를 희망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임.
- ▶ 앞으로도 우호 교류를 통해 자주 방문하기를 기대하며 서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

주요 간담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 ▶ 관광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 산업이었지만, 최근 들어 AI 인공지능, 의료바이오, 해양바이오, 수소 에너지, 반도체 등을 중점으로 발전 전략을 세워 다양한 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있음.
- ▶ 양 지역 간의 인적 교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서 말씀하신 근로자 파견 프로그램이나 자매결연을 맺은 후 적극적인 문화, 사회, 관광 및 경제, 산업 분야에서도 교류 활동이 촉진되기를 희망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임.
- ▶ 앞으로도 우호 교류를 통해 자주 방문하기를 기대하며 서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

[강원특별자치도 / 심오섭 사회문화부위원장]

- ▶ 강원특별자치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더불어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아시아 최초로 개최하였고, 겨울 스포츠가 없는 국가에 드림 프로그램으로 동계 스포츠 유망주 발굴 사업을 진행 중임. 베트남의 다낭을 포함한 여러 겨울 없는 도시의 청소년을 초대하며 국제 행사와 청소년 활동 그리고 녹색경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경험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임.

□ 소회 및 시사점

- 다낭은 베트남 다섯 번째로 큰 대도시 중 하나이며,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로 부상하는 도시임.
- 대한민국은 다낭에 총영사관을 설치한 5개국 중 하나로 신속하고 적절한 양국 협력이 가능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남쪽으로는 호이안 구시가지와 북쪽으로는 베트남의 고도 후에가 있으며, 두 곳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음.
- 정선아리랑, 강릉단오제 등 다양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과 비슷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투자환경에 다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베트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배아래 운영되는 사실상 단일 정당체제로, 집행부는 의회에서 선출하며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단순 집행하는 구조임.

- 응우옌 티 안 티 다낭시인민의회 부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와의 상호협력 및 교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으며 간담회에서 이를 적극 피력하였음.
- 또한, 양국 간 기업의 투자를 위해 설립된 VKBIA(베트남-대한민국 기업인 투자협회)는 지난 2023년 한-베 비즈니스 포럼, 호치민시 인민위원장 광주광역시 방문, 전기이륜차 업무 협약 등 양국 간 경제적 협력관계 개선에 앞장서왔고,
- 간담회에서도 쩐 하이린 회장이 다낭시인민의회 및 다낭시청과의 협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와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 우호적인 협력관계에서 다낭시와의 교류가 활성화 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 문화, 관광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낭시 인민의회 등 4개 기관 합동 간담회



[양 지역 간 협력 강화 방안 간담]



[현지 뉴스 보도]



[올림픽 뱃지 전달]

(응우옌 티 안 티 부의장, 응우옌 딘 칸 빈 사회문화위원장)



[기념품 전달]
(응우옌 티 안 티 부의장)



[기념촬영]
(다낭시인민의회, 다낭시청, VKBIA 등)

2. 주요 관광지 견학 및 벤치마킹

□ 일 시 : 1. 8.(월) ~ 1. 11.(목)

□ 장 소 : 다낭시, 꽝남성 일원

□ 주요내용

① 손짜반도 영흥사(다낭시)

- 다낭-강원특별자치도 간 주요 문화유산 활용 실태 비교
- SNS를 활용한 현지 관광지 홍보방안 벤치마킹 등

② 한 시장, 다낭대성당, 한 강(다낭시)

- 전통시장 관광 상품화 방안 및 홍보 전략 확인
- 관광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 분석 등
- 야간 관광 연계를 통한 주변 상권 발전 방안 모색 등

③ 마블마운틴(다낭시), 호이안(꽝남성)

- 자연 형성된 동굴과 불교 사원이 어우러진 지형으로, 강원의 산지와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모색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호이안의 문화탐방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 및 편의시설 실태 파악

④ 바나산, 사랑의 부두(다낭시)

- 바나산국립공원 및 '바나힐 케이블카(길이 5.8km, 세계적으로 유명) 견학을 통한 케이블카 관광자원의 발전방향 및 가능성 분석
- 주요 관광지 포토스팟 활용 방안 확인

□ **관련사진**

① 손짜반도 영흥사(다낭시)



[영흥사 대불]



[주요 문화유산 활용 실태(영흥사)]



[주요 문화유산 활용 실태(영흥사)]

② 한 시장, 다낭대성당, 한 강(다낭시)



[전통시장 방문(한시장)]



[전통시장 방문(한시장)]



[전통시장 방문(한시장)]



[주요관광지-다낭대성당]



[한강 관광지 개발현장]



[한강 야경관광지 견학]

③ 마블마운틴(다낭시), 호이안(꽝남성)



[관광자원-마블마운틴]



[호이안 문화유적]

[관광자원 개발현장(호이안 광주리배)]



[관광상품 개발현장(호이안 구시가지)]

④ 바나산, 사랑의 부두(다낭시)



[국립공원 개발현장(바나산)]



[국립공원 식도 설치현황(바나산)]



[국립공원내 관광시설 개발현장(케이블카 환승역 어뮤즈먼트 파크)]



[국립공원내 관광시설 개발현장]



[주요관광지-사랑의 부두]

V

도정 정책 반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 2024. 2. 23.(금) 13:30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 : 18명(사회문화위원회 8, 전문위원실 4, 의정관 1, 국제통상과 1, 문화유산과 1, 관광정책과 1, 관광재단 1, 평창기념재단 1)
- 토론주제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다낭시의회” 우호교류협력 체결 논의
 - 평창기념재단의 “드림프로그램” 사업에 다낭시 포함 논의
- 추진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3:35	5'	▪ 인사말씀	위원장 주재
13:35~13:50	15'	▪ 결과보고(부위원장)	
13:50~15:00	70'	▪ 토론회 - 우호교류협력(도의회&다낭의회) 체결 논의 - “드림프로그램” 사업에 다낭 포함 논의	
15:00		▪ 마무리말씀	

○ 보도자료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6일 (월)
인물 22면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토론회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정재웅)가 지난 2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사회문화위 공무국외출장 관련
 도정 정책반영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도의회

토론회 회의록

[인사말씀 / 정재웅 위원장]

- ▶ 지난 1월 있었던 공무국외출장 주요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였음. 위원님들께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신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 바람.

[결과보고 / 심오섭 부위원장]

- ▶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베트남 다낭시 일대를 방문한 공무국외출장은, 2023년 9월 26일 다낭시인민의회 의장단 방문에 따른 답방의 성격으로 인민의회 의장단의 초청을 받아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간담회 자리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다낭시인민의회 및 VKBIA(베트남-한국 기업인투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양 지역 간 문화, 관광, 사회 분야는 물론 경제, 산업 분야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
- ▶ 간담회 내용으로는, 근로자 협력 프로그램을 강원특별자치도로 확대, 다낭시 홍보 협조, 양 지역 간 향후 투자 및 협력 활동 전개 등을 논의하였음.
- ▶ 핵심 건의 사항으로는, 다낭시인민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간 우호교류 협력 체결과 드림프로그램에 다낭시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것이었음.

[주요의견]

- ▶ **(김시성 의원)** 바나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방문 시 중간 환승역 구간에 놀이공원 등 관광객 어트랙션이 상당히 인상 깊었음. 특자도도 오색케이블카 등 활용 가능성 높아. 물론 규제는 이해하지만 강원특별법 개정예 반영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 국제교류에 관하여서는 중국보다는 베트남에 한국 기업 등 많이 들어가 있고 다낭과 강원은 비슷한 점이 많으므로, 굳이 대도시만 찾아서 교류하기 보다는 동질감 느낄 수 있는 비슷한 도시가 나올 수 있음.
⇒ **(정재웅 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일반론으로 볼 것 아니라, 시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 ▶ **(원미희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인민의회 부의장이 직접 협약을 요청하였음. 다낭에서는 우호교류에 대해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외국인 관광객이 약 200만 명인데 그 중 8~90% 가까이가 대한민국 국민임. 양국 간 경제력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낭과 교류할 때 이득이 될 수 있는지 고려가 필요함. 우호단계에 따라 자매결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관광자원 활성화 특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심오섭 부위원장)** 청소년 관련한 드림프로그램 사업성과 좋음. 인민의회도 관심 높고 적극적인데 이런 곳과 교류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음. 간담회에서 논한 내용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정낙규 스포츠사업팀장)** 검토 결과 초청하는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토론회 회의록

- ▶ **(유순옥 의원)** 문화 관련 사업의 효과가 크므로 드림프로그램 속에 스포츠만이 아닌 공식 프로그램으로 문화 관련 사업 들어갔으면 함.
 - ⇒ **(정낙규 스포츠사업팀장)** 코로나19 시기 문체부장관 지시로 다변화를 위해 OD국가 외에 선진국도 시범적으로 포함했었음. 사업 내에 스포츠와 문화 쿼터가 있는데 충실하게 진행하겠음.
- ▶ **(김정수 의원)** 현재 자매결연 도시 중에 중국이 가장 많은데, 관광객 등 현황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 변화, 연령층 및 관광 유형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정작 관광객 수는 예전보다 50% 이상 감소하였음. 현재 중국과 관계 개선 등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베트남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함.
 - ⇒ **(소은주 국제교류팀장)** 코로나 종료 후 관광객은 어느 정도 증가 추세임. 베트남과의 관계도 진행 중임. 검토해 보겠음.
- ▶ **(원제용 의원)** 기존 우호교류, 자매결연 도시를 바꾸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겠으나 다낭시와의 교류는 새로 시작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교류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함.
 - ⇒ **(소은주 국제교류팀장)** 기존 교류는 국가 간 단교 등의 사태가 아닌 이상 해지하기 쉽지 않음. 다만 신규지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협의와 조사를 통해 이해관계만 맞으면 교류 추진 가능함.
- ▶ **(정재용 위원장)** 지금까지의 국제교류는 주로 집행부 주도하에 진행되었음. 별개로 조직이 분리 독립된 이상 의회 차원에서의 교류도 가능하다고 봄. 하지만 집행부 협조 없이 의회 단독은 한계 있고 함께 고민해서 시책 반영이 필요함. 교류국가를 넓히는 차원에서 경직되지 않고 다각화할 필요 있음. 상대가 더 의욕적으로 다가오는데 반응이 없는 것도 결례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의회도 이 성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심오섭 부위원장)** 직접 가보니 대한민국 다낭시라고 할 정도로 한국인 관광객 많음. 거기서 여기로 오는 관광객 수는 어떻게 되는지? 직항노선 개설은 가능한지?
 - ⇒ **(장홍선 해외마케팅팀장)** 약 430만 명 정도인데 직항노선 등 관광 협약 등은 양 지역간 우호교류가 있어야 가능함.
 - ⇒ **(정재용 위원장)** 비단 관광뿐만 아니라 다문화·농촌·노동 등 함께 풀 수 있음.

[마무리말씀 / 정재용 위원장]

- ▶ 의견 개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과보고는 집행부와도 공유할 예정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집행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토론회 사진



[토론회 개최]



[위원장 인사말씀]



[부위원장 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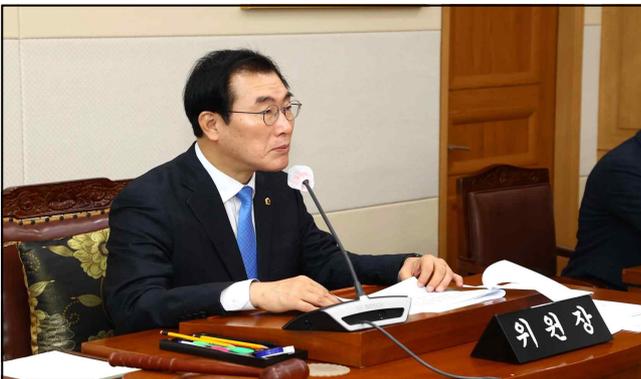
[도정 정책 반영 토론회]



[도정 정책 반영 토론회]



[도정 정책 반영 토론회]



[위원장 마무리말씀]



[기념촬영]

- 2024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3박 5일간 베트남 다낭시, 꽝남성을 방문하여 벤치마킹 한 결과
- 다낭시인민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하여서는,
 - 다낭은 베트남 국내에서 상당한 발전 동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모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상호발전 가능성이 큰 것을 확인하였음.
 - 특히 집행부 주요 간부들을 의회에서 임명하는 구조상 집권 정당인 베트남 공산당의 의지가 중요할 것인데,
 - 베트남인민의회 응우옌 티 안 티 부의장과 응우옌 딘 칸 반 사회문화위원장을 통해 다낭시인민의회가 적극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강하게 원하고 있음.
 - 집행부와 협의하여 행안부를 통해 자매결연이나 노동자 협약, 기업 유치 등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낭시 관광자원 분석을 통하여서는,
 - 문화유산 및 자연 관광자원을 활용한 영흥사, 마블마운틴의 사례와 관련,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상이나 설악산 국립공원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원 활용 방안을 분석하였음.
 - 다낭대성당, 사랑의 부두 등 다낭시의 대표적 포토 스팟과 한 강 야간유람선과 같은 야경 활용과 관련하여 삼척 성내동 성당, 강릉 안목커피거리 등 기존 포토스팟 및 야경 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자원 활용에 대해 논의하였음.
 - 한 시장, 호이안 구시가지 등 전통과 어우러질 수 있는 자원으로 춘천, 강릉 중앙시장 등 시군 재래시장, 속초 아바이 마을 등의 활용 방안에 참고할 수 있었음.

- 마지막으로 바나산 국립공원 및 바나산 케이블카 견학을 통해 현재 건설 중인 오색삭도 케이블카의 어트랙션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 참고할 수 있었고, 동해 무릉별유천지와 같은 테마 공원에 적용 방안을 연구하였음.
 - 특히, 현지인 가이드 및 운전기사 의무 고용, 해외 여행사 가이드 국가소유관광지(사설관광지 제외) 출입 금지 등 우대 정책을 통해 자국민 보호에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공산당 일당집중인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차이로 바로 적용은 불가하겠으나 어느 정도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다낭시 관광자원 활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인 문화와 관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다낭시인민의회와의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양 지역간 상호 교류·협력에 대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VII 향후계획

- 공무국외출장 정책반영 간담회 개최를 통한 발전방향 모색
- 우수 정책·사례 등은 관련 부서와 공유 및 정책제언 자료로 활용